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서흥관



필자의 어린 시절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사법고시 합격이 많은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아버지가 장기간 실업자이었던 가난했던 우리 형제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의사가 되는 길을 택했지만 둘째 형이 사법고시에 합격함으로써 그 꿈을 이루었다. 시집와서 이십여년 간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온몸을 바쳐 왔던 어머니를 친척들이 처음으로 부러워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지만 지금까지도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합격은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서민의 자녀가 신분상승 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이기도 하다.

특권층 아닌 당신 자녀의 미래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달 소위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내년부터 5급 신규 공무원의 30%를 민간 전문가 가운데서 뽑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5년부터는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전문가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험 방식도 현행 필기시험 위주의 고시가 아닌,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도 합격자를 가리도록 하는데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나 전문분야 경력자를 우대하게 했다는 것이다.

채 사건은 많은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응시 조건과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과정까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경우는 예외라 하더라도 아무리 공정하게 이 제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경쟁은 처음부터 불공정한 것이다. 전문가를 우대해서 뽑는다고 하면서 학위를 강조하는데 대학 입학해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십여 년을 돈을 벌기는커녕 역대의 돈을 써야 하는데 합격할 확률이 극히 낮고 그 기회를 바라고 장기간 투자를 서민들이 할 수 있겠는가? 당장 낮은 급여의 일자리라도 얻어서 쫓돈이라도 벌어야 하는

방학 동안에 수백만 원씩 들여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국제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들 앞에 서면 자기의 온갖 다양한 국제경험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골에서 책만 읽다가 올라 온 죄 없고 눈 맑은 청소년들은 빈약한 자기 경험 때문에 면접서류에 '글로벌 시대에 부적합한 아이'로 분류가 되어 불합격의 쓴 잔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국가의 특별교육기금을 통해 폭넓은 장학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도 능력만 있으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줘야 한다. 만약 로스쿨이 꼭 필요한 제도라면 로스쿨의 30% 정도는 전액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오로지 공부만 잘해도 로스쿨을 졸업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그래야 가난한 서민의 자녀도 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나라 특권층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특권층이 아닌 서민들이 희망을 갖는 사회가 밝고 바람직한 사회이다.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이 그들만을 위한 선진화가 되지 않도록 특채 제도를 폐지하거나 극히 제한하여 더 이상 특권층만을 위한 선진화방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국립암센터 가정의학 전문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호남고속철 영남에 10년이상 뒤쳐진다니

또 그 지긋지긋한 '호남 소외'인가. 호남지역 고속철도망이 영남보다 최대 10년 이상 뒤쳐질 것이라고 하니 참으로 암담할 뿐이다. 호남고속철도는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 반해 경북고속철도는 2단계 공사가 오는 11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경북고속철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호남고속철의 공정과 비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문제는 정부가 호남고속철에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할 예산을 경북고속철에 몰아주고 있다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투자 사업비를 보면 확인하다. 지난 4년간 호남고속철에 투자된 사업비는 전체 10조4901억원의 4.22%(4428억원)에 불과하다. 이같은 '빚판 투자'는 경북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정부 예산이 우선 투자됐기 때문이라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대출한도 제한 대학' 재학생 피해 없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곳을 발표했다.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70%인 제한대출그룹에는 4년제 대학 13곳을 포함해 전문대 11곳 등 24개 대학이, 등록금의 30%인 최소대출그룹에는 4년제 2곳, 전문대 4곳 등 6개 대학이 각각 선정됐다. 이 가운데 광산대, 남부대, 초당대, 한려대 등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 4곳이 제한대출 대학으로 지정돼 지역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대출한도 제한 대학을 공개한 것은 대학 구조조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는 2015년이면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한다고 한다. 이미 지난해 전체대학 중 절반이 넘는 54.5%가 재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따라서 정원에도 미달하는 한계대학의 퇴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수시 모집을 앞둔 상황에서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실대학과 그들을 방치한 정부가 재야 할 책임을 아무런 죄없는 재학생들에게 전가한 꼴이기 때문이다.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까지도 부실대학 출신이란 꼬리표 때문에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하다.

신경 기준도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학사관리 등 6개의 기준이 지나치게 지방대학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해당대학들은 기준이 불공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부실대학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선량한 재학생의 피해를 줄일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재학생의 전화 허용 등 구체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부실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세심한 퇴출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대학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있다.

의료 칼럼 김현숙

42세 주부 박씨는 6개월 전부터 아침에 손이 붓고 아팠다. 곧 나아지려니 하고 소염제만 먹고 지내다가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았다. 하지만, 진단 후에도 관절염이 부작용이 많다는 주위의 말만 듣고 수개월간 치료를 미루다 최근 손목뼈가 많이 손상되고 굳어졌다는 말에 후회가 막심하다.

관절 활막에 생긴 염증은 관절을 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맥경화, 골다공증 등의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몇 번의 치료 또는 복용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치시킬 수 있는 약물은 없다. 하지만, 가능한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약물 및 운동 요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무리가 없고 적은 수이지만 완치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기본적인 생활 교정, 운동 요법과 함께 약물 치료를 우선

기고 송광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북구가 지역주민과 소통의 행정을 펼쳐나가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이 제도는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세계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시행한 곳은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시다. 북구는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자치부가 표준조례안을 제정한 2006년부터 2년이나 앞섰다.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는 대략 14단계

잘 통하고 오해를 없애는 것은 양방향의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합의를 찾는 것이다. 구정을 이끌어 가는 데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지다. 아무리 주민을 위한 것이라도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면 효과가 반감된다. 소통부족은 오해와 불신을 낳는다. 정당한 일을 하더라도 말썽과 잡음이 생성된다. 장시간 지속되다 보면 갈등이 커지고 충돌로 이어진다. 특히 진정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치료가 답이다

관절염이 모두 대표적 여성질환인데다 뼈마디가 욱신거리고 관절이 붓고 뻣뻣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 골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심해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한다. 주로 무릎, 엉덩이 등 체중을 지탱하는 큰 관절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달리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인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자가면역 질환이란 세균, 바이러스 등 외부의 공격에 반응해야 하는 면역계가 오히려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손가락, 손목, 발목 등 작은 관절에 증상이 나타나지만 관절이 있는 곳은 어디든 발병한다. 관절뿐 아니라 폐, 신경, 눈 등 전신을 침범할 수 있다. 관절 외 다른 부위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골관절염과 달리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열, 체중감소, 피로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서운 이유는 병의 빠른 진행 속도와 합병증 때문이다. 일단 발병하면 급속도로 관절의 변형과 파괴가 시작된다. 1~3년 이내에 관절 연골 및 조직이 파괴되고 관절 주위의 뼈까지 손상돼 최악의 경우 영구적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으로 한다. 주로 쓰이는 약물은 항류마티스 제제,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제제, 생물학적 제제 등이다. 먹는 소염진통제나 스테로이드는 통증과 염증을 빠르게 감소시켜 널리 사용되나 장기 복용 시 속쓰림, 위출혈 등 위장관 부작용과 함께 고혈압·백내장·신장기능 이상·골다공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소염진통제 복용은 최소한으로 하고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항류마티스 제제를 가능한 빨리 사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 등 최신 치료제들이 개발돼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 생물학적 제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에 관여하는 염증성 물질들을 차단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키고 병의 진행 자체를 억제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이다. 더욱이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치료 결과가 더욱 좋고 합병증도 거의 없다. 전문의의 상담 하에 효과적인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 등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완치에 가까워질 수 있는 큰 첫 걸음이다. <조선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지역발전 견인하는 '소통 행정'

의 과정을 거친다. 동별지역회의 의견수렴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 예산을 확정한다. 구심체는 26개 동(洞)에서 3명씩 선정된 주민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다. 이들은 6월부터 예산이 확정되는 11월까지 합속토론회까지 해가며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동안 제기된 주민 의견 736건 중 502건이 반영될 만큼 반영률도 높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과 자치단체를 소통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튼실하게 하는 제도로 정착됐다.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소통이다.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이해가 상충 될수록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자치시대 행정에서도 소통은 단체장이 추구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효율성을 높이고 공감대를 얻는 지름길인 소통행정이다. 무엇을 해야 하고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주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마음을 끌어내야 한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가 '막히지 않고 잘 통함'과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다.

성이 없으면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의를 찾기가 어렵다.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믿음을 주는 것이 진정성이다. 또 소통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분명해야 한다. 어정쩡한 소통은 후유증만 생긴다. 공무원과 지역주민, 단체장과 조직 간 소통도 마찬가지다. 진정성과 분명한 태도에서 신뢰가 쌓이고 갈등을 녹이게 된다.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이벤트가 재미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까지 잡아줄 수는 없다. 행정의 소통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 북구의 지역리더가 참여하는 365오피니언 그룹과 주부명예기자제, 동네한바퀴주부순찰단이나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도 주민참여 예산제와 함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한다. 국가나 행정, 기업, 개인 모두가 맞춤형 소통방식을 선택해서 변화의 노력을 한다면 상생발전의 길은 열린다. 2300년 전 장자가 강조했던 '소통'의 중요성은 21세기에서도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소통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광주시 북구청장>

타이어 공기압 자동측정기 부착 의무화 했으면

최근에 우연히 타이어의 공기압을 측정해주는 주유소나 정비소마다 공기압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이용하는 한 카센터에 갔더니 적정 공기압을 50psi라고 말했다. 그런데 다른데서는 40이면 적당하다고 말하고 심지어 어떤데서는 원래 50이 맞지만 승차감을 좋게 하려면 공기가 너무 뽕뽕해도 안 좋으니 적절히 공기를 빼서 다니는 게 좋다고까지 말했다. 그래서 처음 차를 구입한 승용차 판매업

체에 전화를 걸어 승용차 타이어의 실제 규정 공기압을 물어봤더니 30psi이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타이어의 공기압은 규정보다 10psi만 차이 나도 급박에서 전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며 안전성을 감안해 미국에서는 신차에 의무적으로 공기압 자동측정기를 붙이도록 해줬다고 한다. 우리도 이것을 의무화시키거나 정비업소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듯하다. <이진경·광주시 북구 운정동

無等鼓

밥 많이 먹는 사람을 '밥통'이라 놀려대지만, 우리 조상들에게 그게 큰 흠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랑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대표적인 대식가로는 신라 29대 왕이자,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춘추가 꼽힌다. 그는 하루에 쌀 서 말, 콩 아홉 마 리, 술 여섯 말을 먹어치웠다고 한다. 술도 쌀로 만들었으니, 순전히 '쌀 힘'으로 삼국을 통일한 셈이다.

은 양질의 탄수화물 덩어리이면서도 빵과 같은 밀가루 음식에 비해 배 이상 단 백기가 높은 식품이다. 쌀에 없는 것은 비타민 A, 칼슘 정도라고 하니 쌀로 배를 채운 조상들이 이 해가다. 요즘엔 사정이 180도 달라졌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74kg으로 지난해 132.4kg의 절반 가까이 격감할 정도로 쌀이 흉대를 받고 있다.

밥통 예찬

의적 홍길동의 형이라는 설이 있는 조선 세조 때 신비 홍일도 역시 만만치 않는 먹보였다. 서거정의 '필원잡기'는 그가 진관사에 놀러가서 밥 세 마릿대, 떡 한 그릇, 국수 세 그릇, 두부와 청포묵 아홉 그릇을 먹어 치웠다고 적고 있다. 이런 대식가는 아니더라도 옛 선조들은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한끼에 쌀 5홉은 먹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4인용 전기밥솥을 가득 채울 양이다. 근본적인 쌀 소비대책은 없는 걸까. '밥통'이 그리워지는 아침이다. /김주석 여론매체부장 jkwsem@

쌀 재고량은 10월 말 현재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149만t으로 적정량 72만t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햅쌀이 나오면 쌀값이 급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햅쌀 청포묵 아홉 그릇을 먹어 치웠다고 적고 있다. 이번 대식가는 아니더라도 옛 선조들은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한끼에 쌀 5홉은 먹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4인용 전기밥솥을 가득 채울 양이다. 근본적인 쌀 소비대책은 없는 걸까. '밥통'이 그리워지는 아침이다. /김주석 여론매체부장 jkwsem@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여론매체부 2200-621 <대표 FAX 222-4918>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대표 FAX 222-4918>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대표 FAX 222-4267> 경명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지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